

# 늦어도 8월 문 연다

##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경북 봉화군 춘양면 고냉지약초시험장 조성 사업이 문を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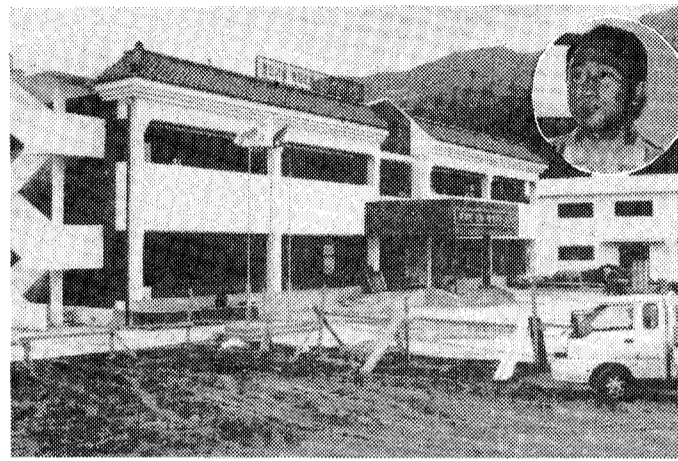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지난 96년 설립된 의정대학시험장의 이터 경부지역에서 두 번째 약초전문연구기관이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고냉지약초시험장 조성 사업이 문を開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지난 96년 설립된 의정대학시험장의 이터 경부지역에서 두 번째 약초전문연구기관이다.

이같은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살려 ▲고냉지 특용 고품질 다수약초 신종 개발 ▲고냉지 약초 저비용 안전 재배 기술 연구 ▲고냉지 약초 품질 향상 및 저장 기술 연구 기술 협력 등을 중점 과제로 연구할 계획이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고냉지약초시험장 조성 사업이 문を開다.



◇봉화고냉지 약초시험장(왼내는 황계선장장)

### 백출, 중국산과 생산성 비교분석 삼주 재배기술체계 확립계획 11명 직원, 고냉지약초 고품질화에 박차

재배를 통해 산출재배 기술을 체계화할 계획으로 97년 시험연구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험장인

구할 계획이다. 특히 당귀 재배법 개선과 천궁 병충해 예방, 연작장애 시험을 통한 봉화고냉지 약용작물 생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수집된 50여종의 유전자원을 비롯 당귀, 천궁, 산수유 등 4백60여종의 약초종자를 파종 1만8천여평 규모의 시험포장을 조성중이다.

유종재배연구실의 최장수 실장은 국내 산출물에 비해 중국산의 경우는 수확량이 우수하긴 하나 재배과정에서 병충해발생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일명 큰산수로 불리는 중국산과 국내 산출물 비교 재배시험을 이로서 이같이 병해발생의 원인과 생산성을 비교분석해 볼 계획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 재배면적 감소로 현호색가격 급상승세

최근들어 단속이 강화된 탓인지 일명 '보따리 물건' 거래가 주춤한 상태. 그 영향으로 두충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국내산 약재시세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타고 있기는 하나 비수기인 여름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 실제 거래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 요즘 시세를 두고 일부에서는 '속빈강정'에 비유하기도 한다. 값이 오를것에 대비한 중상들이 일부품목의 물량을 쥐고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호색** 예년의 경우 많게는 10만근 까지 생산되던 현호색이 금년들어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4만3천근(건근)에 불과한 생산실적을 나타냈다. 아울러 시세도 급상승세. 지난 5월 근당(6백g 기준) 6천원에 도매거래되던 현호색이 6월들어 근당 7천원 선에 도매로 거래되고 있다.

경북 하동이 주산지인 현호색 재배면적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원인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산지인의 분석이다. 지난 5월, 6월 이미 수확이 끝난 현호색은 현재 거의 소진된 상태로 산지 보유량은 약 1만7천원 정도라고.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 국산 생강값이 kg당 6천5백~7천4백원 선으로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생강으로 출하되고 남은 자투리가 건조돼 건강으로 유통되고 있기는 하지만 물동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현재 산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 도매시세는 한근당(6백g 기준) 5천~5천5백원(상품기준) 선으로 생강값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 시세동향

**황기** 1년근 소황기 가격이 제철을 만난듯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 근당(6백g 기준) 6천원선에 거래되던 소황기가 근당 5백원 이상 오른 6천5백~7천원 선까지 산지에서 최근 도매 거래되고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보약재료의 수요가 다소 늘어난데다, 물밑에서 불법거래되던 물량이 단속강화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때문이라는 분석. 반면 대황기는 3년근은 근당 1만7천원 선, 5년근 이상은 3만원 선으로 보합세다.

**작약**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 94년 작약값이 폭락하면서부터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산은 근당(6백g 기준) 2천8백원 선에, 의성산은 근당 3천5백~3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아직은 많아 국내 소요량은 충분하지만 재고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작약값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두충** 시세가 바닥세로 치달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두충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상품이 6천5백원, 중품이 5천5백원, 하품이 4천원 선. 5월 시세(근당 8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1천5백원, 4월 시세(근당 9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2천5백원이나 큰 폭으로 내림세다.

근당 4천~4백2백원(상품기준)에 불과한 수입산의 영향으로 국산값이 떨어진데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에서는 주피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물동량도 그리 많지 않다.

## 작약 꾸준한 오름세 그러나 물동량은 "잠잠"

**황기** 1년근 소황기 가격이 제철을 만난듯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 근당(6백g 기준) 6천원선에 거래되던 소황기가 근당 5백원 이상 오른 6천5백~7천원 선까지 산지에서 최근 도매 거래되고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보약재료의 수요가 다소 늘어난데다, 물밑에서 불법거래되던 물량이 단속강화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때문이라는 분석. 반면 대황기는 3년근은 근당 1만7천원 선, 5년근 이상은 3만원 선으로 보합세다.

**작약**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 94년 작약값이 폭락하면서부터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산은 근당(6백g 기준) 2천8백원 선에, 의성산은 근당 3천5백~3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아직은 많아 국내 소요량은 충분하지만 재고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작약값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두충** 시세가 바닥세로 치달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두충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상품이 6천5백원, 중품이 5천5백원, 하품이 4천원 선. 5월 시세(근당 8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1천5백원, 4월 시세(근당 9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2천5백원이나 큰 폭으로 내림세다.

근당 4천~4백2백원(상품기준)에 불과한 수입산의 영향으로 국산값이 떨어진데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에서는 주피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물동량도 그리 많지 않다.

## 장마철 약초 관리요령

장마철에는 토양의 유실, 작물체의 도복, 각종 병해의 발생, 잡초의 번무 등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이 저해되거나, 특히 장마직후에는 배수유도, 이병주 제거, 방제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예가 허다하다.

**황기** 1년근 소황기 가격이 제철을 만난듯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 근당(6백g 기준) 6천원선에 거래되던 소황기가 근당 5백원 이상 오른 6천5백~7천원 선까지 산지에서 최근 도매 거래되고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보약재료의 수요가 다소 늘어난데다, 물밑에서 불법거래되던 물량이 단속강화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때문이라는 분석. 반면 대황기는 3년근은 근당 1만7천원 선, 5년근 이상은 3만원 선으로 보합세다.

**작약**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 94년 작약값이 폭락하면서부터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산은 근당(6백g 기준) 2천8백원 선에, 의성산은 근당 3천5백~3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아직은 많아 국내 소요량은 충분하지만 재고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작약값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두충** 시세가 바닥세로 치달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두충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상품이 6천5백원, 중품이 5천5백원, 하품이 4천원 선. 5월 시세(근당 8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1천5백원, 4월 시세(근당 9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2천5백원이나 큰 폭으로 내림세다.